

## 2) 승선·보명학교

전남지역의 여러 사찰에서 보통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구례 화엄사 안에 신명학교, 순천 선암사 안에 승선학교, 송광사 안에 보명학교, 해남 대흥사 안에 대흥학교, 장성 백양사 안에 광성의숙을 설립하였다. 이들 학교의 학생은 많은 곳은 78명, 적은 곳은 34명이었다. 이 중 특히 광성의숙은 부근의 아홉 사찰에서 재원을 각출하여 교육을 하였으며 과정은 고등소학과와 농업실업과를 두었다.<sup>1)</sup>

이처럼 순천지역에서도 한국의 독립과 부강을 위해 선암사와 송광사에서 승선학교와 보명학교를 각각 설립하여 민족사학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들 학교가 일제의 공립화 과정에서 언제 폐교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승선학교는 1921년 10월 29일 학부형 100여 명과 지역의 유지가 참석한 가운데 학예회를 성황리에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sup>2)</sup> 이것으로 보아 적어도 1921년까지는 존속됐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들 학교에 대한 좀더 자세한 자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

1) 『해일신보』 1910. 10. 22.

2) 『해일신보』 1921. 11. 9.

